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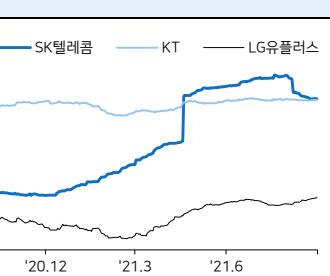
2021.9.2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7	-0.3	-5.4	2.8	11.3	11.3	1.2	1.2	1.6	1.6	
통신업종	1.1	5.6	-3.5	14.8	8.9	8.9	0.8	0.8	3.7	3.7	
SK텔레콤	1.6	4.9	-5.5	21.7	8.9	7.7	0.9	0.8	3.3	3.5	
KT	-0.6	-1.1	0.0	16.5	8.6	8.1	0.6	0.5	5.0	5.4	
LG유플러스	1.4	5.7	-5.4	22.3	9.0	8.1	0.8	0.8	3.5	3.9	
AT&T	-1.5	-1.1	-6.1	-9.8	8.3	8.5	1.1	1.0	7.7	7.3	
Verizon	0.2	-1.0	-3.6	-5.2	10.3	10.2	2.8	2.5	4.7	4.7	
T-Mobile	1.1	-7.5	-10.9	4.8	52.6	37.2	2.4	2.2	0.0	0.0	
NTT	0.2	11.8	11.9	9.2	13.0	10.5	1.4	1.4	3.2	3.4	
KDDI	-1.8	12.8	11.3	8.0	13.5	12.9	1.9	1.7	3.2	3.3	
Softbank	-0.1	6.7	-16.4	-27.0	3.0	6.6	1.5	1.0	0.7	0.7	
China Mobile	-1.0	-3.2	-4.6	-7.5	7.1	6.7	0.7	0.6	7.8	8.4	
China Unicom	-2.0	-8.3	-7.5	-9.6	6.8	6.0	0.3	0.3	7.3	8.6	
China Telecom	0.4	-6.4	-10.8	-2.6	7.4	7.0	0.5	0.5	8.0	9.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4.3% (Flat WoW, -2.4%p MoM)

KT 44.2% (Flat WoW, -0.1%p MoM)

LGU+ 33.7% (+0.2%p WoW, +0.7%p MoM)

LGU+, 외국인 지분율 상승 지속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9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8%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삼성전자 네트워크, AT&T에 무전통신 솔루션 및 전용 단말기 공급 확정
LG유플러스,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 지속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LGU+ 순매수, KT 순매도. 외국인은 LGU+, KT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13일 아이폰13 사전예약 시작
5G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은 존재하나 국내 5G 가입자 순증에 긍정적
5G 통신장비 섹터는 5G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대응 추천
알엔투테크놀로지의 LTCC 소재 기술은 5G를 넘어서 2차전지 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아이폰13 사전예약 시작	2

3 주간 뉴스

▶ KT, 디지코 핵심 클라우드 · IDC 사업부문 분사한다

(디지털투데이)

- KT가 비통신 기업간거래(B2B) 핵심인 클라우드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부문을 분사
- 분사 방식은 물적 분할이 유력한 상황.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내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
- 클라우드 · DX사업본부 밑에 클라우드 사업부, IDC 사업부 위치. 분사 후 100% KT 자회사가 될 전망
- ⇒ KT는 최근 본업인 통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이른바 Digico 경쟁력을 지속 강조 중
- ⇒ KT 핵심 부문의 물적 분할은 지속될 것이며 다른 B2B 사업부문도 곧이어 분사할 전망

▶ 브라질 5G 사업 11월 초 국제입찰…투자 규모 11조원

(연합뉴스)

- 브라질 통신부 산하 국가통신국은 국제입찰서를 최종 승인하면서 입찰일을 11월 4일로 발표
- 입찰은 700MHz, 2.3GHz, 3.5GHz, 26GHz 등 4개 주파수 대역의 사업자 선정 대상
- 통신부는 2028년 상반기까지 주민 3만 명 이상 모든 도시에서 5G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
- ⇒ 브라질의 5G 사업은 총 투자 규모가 497억 헤알(약 11조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 국제입찰서에 통신장비업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화웨이의 참여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

▶ 갤럭시S '하반기 출시'로 바뀐다?... "S22 연내 출시 유력"

(한국경제)

-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예상보다 빠른 오는 12월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갤럭시S22의 조기 출시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13 출시에 따른 대응 필요성 대비
- 하반기 갤럭시S22 부재도 갤럭시S22 조기 투입설의 원인. 경쟁 우위를 위해 갤럭시S22 출시 필요
- ⇒ 갤럭시S22와 아이폰13 출시로 인해 통신사간 우량 기입자 유치 경쟁이 심해질 전망
- ⇒ 아이폰 13 포함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출시로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

▶ 美, 삼성전자 기술로 재난망 구축한다

(전자신문)

- 삼성전자, 미국 재난망 '퍼스트넷'을 운영하는 AT&T에 무전통신 솔루션과 전용 단말기를 공급
- 기존 공공 무전통신 방식인 지상이동통신과의 우수한 상호운용성을 인정받아 퍼스트넷을 수주
- AT&T는 갤럭시S9, 갤럭시S20 울트라 등 총 14종의 삼성전자 단말을 퍼스트넷 유통으로 활용
- ⇒ AT&T는 삼성전자를 주력사, 모토로라 등을 보조 사업자로 각각 선정할 것으로 관측
- ⇒ 미국 전역을 커버할 퍼스트넷 규모를 고려, 수주 물량이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증가할 전망

▶ 디즈니 타고…LG유플, 유료방송 2위 추격

(매일경제)

- LG유플러스 IPTV로 디즈니플러스를 시청하게 되면 월 이용료는 2만원 중반에 형성될 전망
- 디즈니플러스가 구글 OS와 잘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 상용 파트너로 LG유플러스가 낙점
- 디즈니플러스를 시청하기 위한 방법은 유료방송(IPTV · SO) 혹은 모바일(휴대폰) 두 가지
- ⇒ 지난해 말 기준 IPTV 가입자는 KT가 787만명, SKB가 554만명, LG유플러스가 483만명
- ⇒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로 가입자 수 500만명대를 넘는다면 2위인 SKB를 위협할 전망

▶ 아이폰13 흥행 조짐… 이통사 5G 가입자 확대 청신호

(뉴데일리경제)

- 애플은 미국, 일본, 중국 등 1차 출시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이폰13 출시, 중국에서 흥행 성공
- 아이폰13의 국내 출시일은 10월 8일로,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전망
- 국내 이통 3사는 알뜰폰 자회사들과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사전예약 마케팅 경쟁에 들어간 상태
- ⇒ 아이폰13 포함 5G 단말기의 계속된 출시로 국내 5G 가입자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록할 전망
- ⇒ 갤럭시 Z폴더/플립 판매 현황에 따라 일시적인 마케팅 부담은 존재하나 통신3사 실적에 긍정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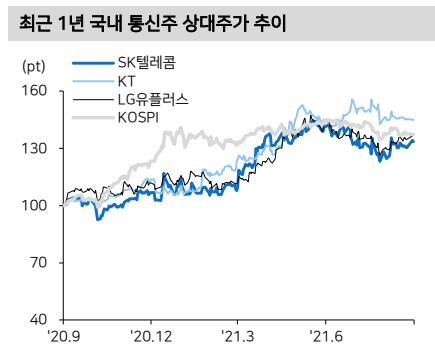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08,500	18.8	16.5	17.2	1.3	1.4	2.1	2.4	4.9	5.0	5.7	5.5	10.2	11.0
	KT	32,450	7.2	21.0	21.6	1.3	1.4	0.8	0.9	4.4	4.5	2.8	2.8	6.9	7.2
	LG유플러스	14,800	5.5	11.7	12.3	0.9	1.0	0.6	0.7	3.0	3.1	3.7	3.6	9.4	9.8
미국	AT&T	27.1	193.7	171.3	159.6	31.9	32.3	23.2	22.4	52.8	51.9	7.2	7.3	13.6	12.4
	Verizon	54.4	225.1	135.1	136.0	32.0	33.2	22.0	22.2	48.5	49.9	7.7	7.5	28.7	25.8
	T-Mobile	129.4	161.5	80.5	82.3	7.3	9.7	3.0	4.4	27.0	28.6	8.7	8.2	4.9	5.8
일본	NTT	3,243	114.2	108.2	110.3	15.1	15.7	8.4	10.1	29.0	29.7	6.7	6.4	10.8	14.3
	KDDI	3,828	79.6	48.5	49.3	9.6	9.6	6.0	6.1	16.3	16.5	5.9	5.8	14.5	13.7
	Softbank	6,627	103.1	50.9	55.4	49.9	13.2	37.1	13.2	50.0	20.6	5.3	12.6	39.3	12.5
중국	China Mobile	47.2	124.1	130.0	137.3	18.5	19.8	17.7	19.0	47.6	49.8	1.1	1.1	9.7	9.9
	China Unicom	4.0	15.6	50.5	53.4	2.0	2.4	2.3	2.6	15.0	15.8	0.8	0.8	4.5	4.9
	China Telecom	2.6	57.9	66.7	71.5	5.3	5.8	4.0	4.3	19.5	20.4	3.2	3.1	6.7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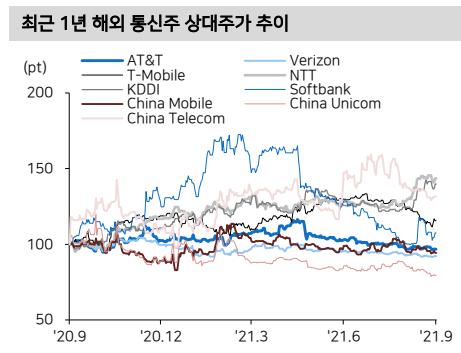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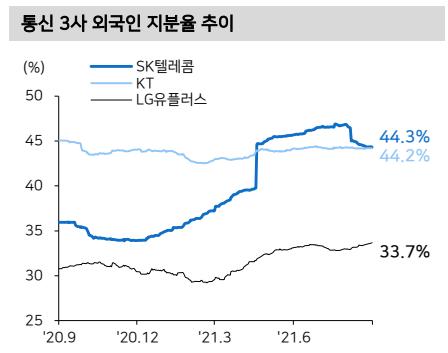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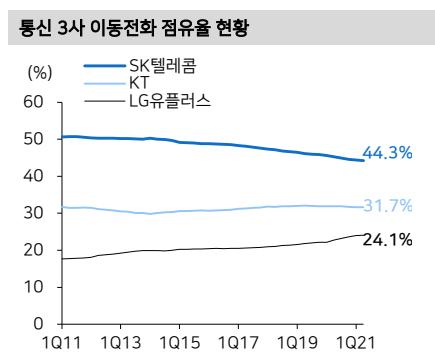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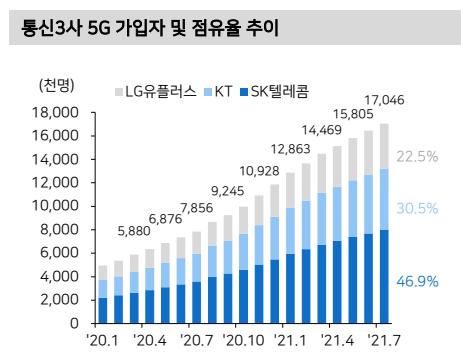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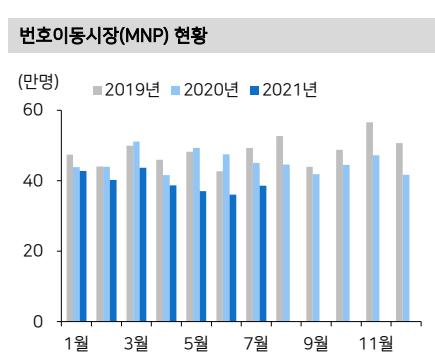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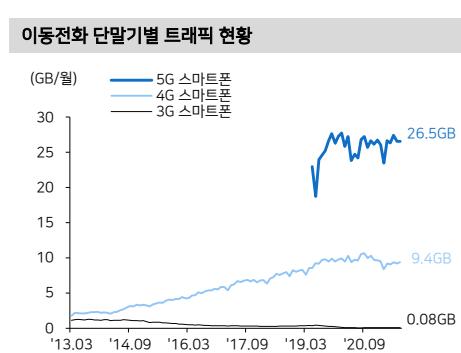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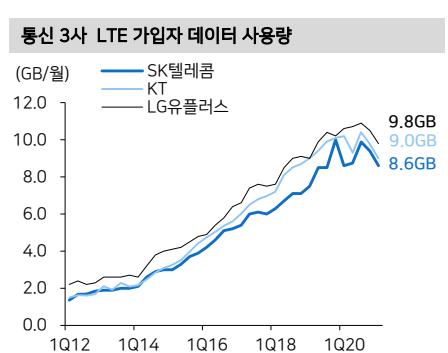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